

헨리 나우웬의 영적작업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연구 :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신광식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박사과정

서론

1. 헨리 나우웬의 영적 작업
2. 근대 이후 세속 시대의 종교적 상황
 - 2.1 세속시대의 종교적 조건: 선택으로서 신앙과 상호압박 (cross-pressured)
 - 2.2 단절 의식과 내면지향적인 움직임
3.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종교적 상황
 - 3.1 1960년대 영적 추구방식의 변화
 - 3.2 영성의 상업화와 영성화(spiritualization)
4.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변화
 - 4.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쇄신
 - 4.2 하느님 계시의 인격성
 - 4.3 하느님 현존의 매개로서 전례의 성사성
 - 4.4 하느님의 모상(Imago Dei), 그리스도의 모상(Imago Christi)인 인간

결론

서론

헨리 나우웬(Henri Nouwen, 1932-1996)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영성 작가다. 네덜란드 가톨릭 배경의 가정에서 태어난 헨리 나우웬은 1957년 사제서품을 받고, 1971년 미국으로 건너가 1996년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쉬(L'Arche)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 가톨릭 사제로, 사목심리와 그리스도교 영성 학자로, 영성작가, 사회운동가, 강연자로 영적 작업에 힘썼다. 그의 작품들은 한국어를 비롯한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고 가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영향력 있는 영성 저술¹⁾로 평가받는다. 한국에서는 가톨릭 교회에 속한 영성 작가임에도 이례적으로 가톨릭 계통 출판사보다는 개신교 계통의 출판사에서 그의 작품이 더 많이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고²⁾, 그의 영성에 대한 연구도 개신교 계통의 대학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헨리 나우웬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헨리 나우웬의 영성이 갖는 영성적인 특성을 드러내 주거나, 사목신학적인 차원이나 그리스도교 교육학적인 차원에서 헨리 나우웬의 영성이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는데 초점을 둔다.³⁾ 이런 연구들은 주로 헨리 나우웬의 영성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둬으로써 그의 영적 작업과 시대적인 배경 사이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바라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헨리 나우웬이 가톨릭 종교전통에서 성장하고 활동했음에도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그의 영적 작업을 연결해서 살펴보는 연구가 부족하다. 본 논문은 역사 맥락적인 영성 연구 방법(historical-contextual approach)을 통해 헨리 나우웬의 영적 작업의 시대적 배경과 그와 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⁴⁾ 전통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맥락적

1) 1994년 3,400명의 미국 개신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헨리 나우웬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보다 앞선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었다. 마이클 앤드루 포드, 『상처입은 예언자 헨리 나우웬』, 김명희 옮김, (서울: 포이에마, 2014), 108.

2) 양병모, 「헨리 나우웬 영성이 현대 기독교 영성에 미친 영향: 한 복음주의자의 견해」, 『복음과 실천신학』, 26 (2012, 11), 72.

3) 참조: 헨리 나우웬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서 그의 영성적인 특성에 주목한 연구는 Willy C. Hernandez, *Spirituality of Imperfection: The Coinherence of Spirituality with Psychology, Ministry, and Theology in Henri J. M. Nouwen's Integrated Approach to Soul Care and Spiritual Formation*, Ph. D.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5. 사목신학적인 차원의 연구는 Kyle L. Henderson, *The Reformation of Pastoral Theology in the Life and Works of Henri Nouwen*, Ph. D. diss.,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94. 그리스도교 교육학적인 차원의 연구는 Hui-Chueh Huang, *Spiritual Life and Educational Ministry in the Work of Henri J. M. Nouwen*, Ed. D. diss.,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Virginia, 1995.

인 접근방법⁵⁾은 영성을 인간존재의 영적 경험이나 존재론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특정 영성이 자리하게 된 종교 공동체의 역사, 언어, 이론, 당대의 사회적인 배경 등과의 관련성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이 글은 다음의 순서로 전개된다. 우선 헨리 나우웬의 영적 작업의 전체적 모습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역사적 배경을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다.⁶⁾ 먼저 의

- 4) 신비주의(Mysticism)라는 용어가 20세기 초반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래로 정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일치된 정의는 없다. 전통적으로는 지적이고 감각적인 일반적인 활동을 넘어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직관적인 하느님 현존체험을 주로 얘기한다. 신비주의 연구자들에 따라서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된 지혜 혹은 지식”을 강조하거나(William Johnston),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삶의 체계(a complete system of life) 혹은 삶의 방식(way of life)”을 강조(Evelyn Underhill)하기도 한다. 버나드 맥긴(Bernard McGinn)은 신비주의의 정의를 신과의 일치(union)를 얻고자 하는 탐색이라는 좁은 개념 대신 광의의 개념을 제안했다. 그는 신비주의를 하느님의 직접적이고 변화시키는(immediate and transforming) 현존(presence)에 대한 고양된 인식(awareness)에 대한 준비(preparation)와 의식(consciousness), 그리고 여기에 수반한 효과(effect)와 관련된 믿음과 수행의 요소들로 정의한다. 또한 맥킨은 신비를 말할 때 ‘신비체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비판하고 하느님 현존에 대한 직접적인 의식만이 아니라 이것을 준비하는 것, 의식하는 것, 반응하는 일련의 믿음과 실천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참조: Harvey D. Egan, *Christian Mysticism: The Future of a Tradition*, (New York: Pueblo Publishing Company, 1984), 4-8; Bernard McGinn, “Mysticism” in *The New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edited by Philip Sheldrake, (Louisville, Kentucky: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3), 19; Julia A. Lamm, “A Guide to Christian Mysticism” in *The Wiley-Blackwell Companion to Christian Mysticism*, ed., Julia A. Lamm, (Hoboken: J. Wiley & Sons, 2013), 2-4.
- 5) 그리스도교 영성연구의 방법으로 버나드 맥킨은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신학적인 접근(Theological Approach)으로 그리스도교 영성을 그리스도교 신학의 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교 영성을 그리스도교의 계시에 대해서 불리일으켜지는 종교적인 의식 혹은 초월적인 것에 대한 갈증으로 정의한다. 둘째는 인류학적인 접근(Anthropological Approach)으로 영성을 인간 존재의 깊은 차원(depth-dimension)으로 바라보고 영성을 인간의 진정성, 초월성, 자기 초월성으로 이해한다. 셋째가 역사맥락적인 연구방법이다. 버나드 맥킨은 역사맥락적 접근방법은 공동체의 믿음들(beliefs), 신학, 진리주장을 역사적인 인간 공동체 안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인류학에 열려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따라서 역사맥락적 연구방법이 앞의 두 가지 접근을 함께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Bernard McGinn “The Letter and the Spirit: Spirituality as an Academic Discipline” in *Minding the Spirit: The Study of Christian Spirituality*, ed., Elizabeth A. Dreyer and Mark S. Burrows,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5), 33-35.
- 6) 발터 프린시페(Walter Principe)는 영성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두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권고했다. 첫째는 저자의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배경 등 특정 시간(time)과 공간(space) 안에서의 영성의 위치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는 한 사람의 저작 안에 담겨있는 교의(doctrine)나 가르침(teaching)의 신학적인 배경(theological context)을 탐색하는 것이다. 성경, 교회의 가르침 등과 관련해서 이를 어떻게 해석학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역사적 배경 안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때 한 사람의 영적 작업에 준 삶의 체험적인(lived experience) 차원과 그의 영성에 대한 가르침(teaching)의 요소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Walter Principe “Broadening the Focus: Context as a Corrective Lens in Reading Historical Works in Spirituality” in *Minding the Spirit*, 43-47.

적 요인으로 근대 이후 세속화 시대의 종교적 상황의 특징과 196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미국 내 영성운동 흐름을 살펴보고 이런 요인들이 헨리 나우웬의 영적 작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살핀다. 그리고 내적 요인으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변화된 신학적인 배경이 헨리 나우웬의 영적 작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1. 헨리 나우웬의 영적 작업

헨리 나우웬은 영적 갈증(spiritual hunger)이 커져가고 기성 종교를 뛰어넘어 다양한 영성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에 당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느님과 더 친밀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그런 면에서 그는 현대 문화와 그리스도교적 삶을 연결시켜주는 통역자로 평가받는다.⁷⁾ 그는 자신의 영적 작업의 목적을 현대인들이 신적인 생명에서 근원을 발견하고 신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데 두었다.

나는 모든 사목의 기반은 도덕적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삶(mystical life)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중요한 문제는 삶을 단지 잘 살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신적인 생명(Divine Life)에서 삶의 근원을 발견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⁸⁾

또한 헨리 나우웬은 오늘날의 사목은 하느님의 현존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현존의 사목’(ministry of presence)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헨리 나우웬은 인간의 내면에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비의 열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면의 자아를 향한 발돋움(reaching out)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친밀함(intimacy)을 이루고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도록 돕고자 했다.¹⁰⁾

7) 드아드르 라누에, 『헨리 나우웬과 영성』, 272-273.

8) Henri Nouwen, *Gracias! A Latin American Journal*,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3), 49. 본 논문에서 헨리 나우웬 저작 원문의 인용문은 용어의 일관성을 살리고자 기존 번역본을 참고하여 필자가 직접 번역.

9) Ibid., 148.

10) 연구자에 따라 헨리 나우웬의 영적 작업은 ‘치유적 영성’, ‘통전적 영성’, ‘불완전함의 영성’과 같이

헨리 나우웬은 자신의 이런 지향을 각종 피정과 수련회의 영성 강의, 세미나¹¹⁾,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목활동,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구체화했다. 그는 강의, 연구, 사회참여 활동,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약 40여권에 이르는 영적 저술을 남겼다. 이러한 그의 영적 작업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의 초기 저술들은 임상심리학, 사목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인생주기와 삶의 체험 속에서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¹²⁾ 헨리 나우웬은 가톨릭 정통 신학 혹은 교의신학이 당대의 영적 갈증을 채워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고 심리학을 통해서 신앙의 진리를 인간 경험 속에서 드러내 주고자 했다.¹³⁾ 그는 1964년 미국의 멘ninger 연구소(Menninger Clinic)에서 2년간 임상심리학과 현장사목을 통합적으로 훈련하는 사목상담을 공부한다. 그는 이 시기에 직접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참관하고 가톨릭 교회의 변화에도 주목한다. 이후 그는 1966년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그리고 1971년에는 미국 예일대학 신학부에서 사목심리학과 그리스도교 영성을 가르친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는 『친밀함 Intimacy』을 들 수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종교가 신경증에 지나지 않고 인간을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게 한다는 프로이트(Freud)의 종교비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종교가 파편화된 삶의 의미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한다.¹⁴⁾

1970년대 중반부터 그는 사목심리학적인 접근에서 한발 나아가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영적 생활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글을 발표한다. 특히 미국사

다양하게 규정된다. 그 가운데 마이클 앤드류 포드는 헨리 나우웬이 영성작가로서 당대의 영적인 갈증을 인지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평가한다(마이클 앤드루 포드, 『상처입은 예언자 헨리 나우웬, 378]). 드아드르 라누에는 헨리 나우웬의 영적 작업의 주된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에 있었다고 보았다(드아드르 라누에, 『헨리 나우웬과 영성』, 110).

11) 초창기의 헨리 나우웬은 영성작가라기 보다는 피정, 수련회 및 각종 컨퍼런스의 강사로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드아드르 라누에, 『헨리 나우웬과 영성』, 17.

12) 이 시기의 대표작은 *Intimacy*, (New York: HarperCollins, 1969); *Creative Ministry*, (Garden City, N.Y.: Doubleday, 1971).

13) 그는 일기에서 신학교 시절 주교로부터 신학을 더 공부하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철회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게 해달라고 청했다고 기록하면서 “신학이 내 인생 체험의 영역 전체에 조금도 와 닿는 것이 없다고 느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그는 심리학 역시 지극히 간접적인 욕구만을 채워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헨리 나우웬, 『제네시 일기』, 성찬성 옮김,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9), 196; Henri Nouwen, *The Genesee Diary: Report from a Trappist Monastery* (New York: Doubleday, 1976).

14) Nouwen, *Intimacy*, 10-11, 19.

회의 신자들이 겪고 있는 ‘신앙에 대한 회의’, ‘외로움’, ‘단절’, ‘불안’, ‘무기력’과 다른 한편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영적 체험의 열망을 어떻게 수용하고, 영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 모색했다.¹⁵⁾ 이 시기에 헨리 나우웬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에 관심을 갖게 되어 대학에서 토마스 머튼의 관상이론을 강의하고 본인이 직접 트라피스트 수도회에 단기 입회한다. 그는 동방 정교회의 헤시카즘(Hesychasm) 영성이나 사막의 수도승들의 영성에 대한 세미나와 강의에도 참여한다. 또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을 재해석한 작품들을 발표했다.¹⁶⁾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헨리 나우웬은 영적 삶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사회참여 활동과 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헨리 나우웬은 다른 신학자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연민(compassion)의 삶’을 사회참여의 기본적인 태도로 제시했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고자 대학을 사직하고 이때 남미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기초교회공동체 운동을 접한다. 페루에 체류하는 동안 그는 구스타보 구티에레즈(Gustavo Gutierrez)를 비롯한 해방신학자들과 교류하고 해방신학 영성세미나에 참석한다. 그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라틴 아메리카의 신앙인들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고, 당대 미국의 영성이 이웃의 삶과 세상의 현실과 떨어진 채 개인 지향적이고 내적인 종교 체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그는 미국 사회의 이런 영적 태도를 ‘영성화(spiritualization)’라고 불렀다.¹⁷⁾ 다시 미국의 대학으로 돌아온 그는 영적 생활의 사회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남미의 실상을 알리고 지원하는 ‘역선교’ 활동을 통해서 남미와 북미 교회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했다. 그는 이런 자신의 지향을 이 시기 자신의 작품 속에 담아낸다.¹⁸⁾

15) 이 시기의 대표작은 *The Wounded Healer: Ministry in Contemporary Society*, (Garden City, N.Y.: Doubleday, 1972); *Reaching Out: The Three Movements of the Spiritual Life*,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5); *The Living Reminder: Service and Prayer in Memory of Jesus Christ*, (New York: Seabury, 1977).

16) 이 시기의 대표작은 *Out of Solitude: Three Meditations on the Christian Life*, (Notre Dame, Ind.: Ave Maria Press, 1974); *The Genesee Diary: Report from a Trappist Monastery*, (New York: Doubleday, 1976); *Clowning in Rome: Reflections on Solitude, Celibacy, Prayer, and Contemplation*, (N.Y: Image, 1979); *The Way of the Heart*, (New York: Ballantine Books, 1981).

17) Gustavo Gutierrez, *We Drink from Our Own Wells: The Spiritual Journey of a People*, trans. Matthew J. O'Connell, (N.Y.: Orbis, 1984), 16.

18) 이 시기의 대표작은 Donald P. McNeill, Douglas A. Morrison, Henri J. M. Nouwen, *Compassion: A Reflection on the Christian Lif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2); *Gracias!: Love in a*

헨리 나우웬은 하버드 대학에서 3년간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하고, 1986년 장 바니에(Jean Vanier)가 창립한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쉬로 옮겨간다. 라르쉬에서 그는 사회적 약자들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이들과 공동체를 이룬 체험을 바탕으로 왕성한 강연과 저술활동을 한다. 이 시기의 주요 작품들은 1) 세속시대 삶의 한복판에서 신비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드러내주는 작품,¹⁹⁾ 2) 성화, 그림과 같은 예술적인 매개를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만날 수 있도록 전통적인 관상기도를 재해석한 작품,²⁰⁾ 3)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들과의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 현존의 신비를 발견하고 이를 공동체적 삶과 연결시킨 작품,²¹⁾ 4) 전례를 통하여 예수님 현존의 신비에 참여하고 이웃들 안에서 그 현존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작품²²⁾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헨리 나우웬의 저술에는 자신이 겪은 구체적인 체험과 내적인 움직임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기 고백적 글쓰기가 두드러진다. 그는 한 신앙인으로서 개인적인 소명을 찾아가면서 겪었던 방황과 모색의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기술하거나,²³⁾ 공동체에서 동료와 겪었던 단절의 고통을 단상의 형식으로 드러낸다.²⁴⁾ 또 어머니의 죽음의 과정과 본인이 생사의 위기를 겪으면서 일어났던 내면의 움직임을²⁵⁾ 나눈다. 이런 체험에 바탕을 둔 글들은 독자들을 신비로 이끌어주는 영적 안내자(spiritual guide)로서의 역할과 함께 영적 목마름을

Fearful Land: A Guatemalan Story, (Maryknoll, N.Y.: Orbis Books, 1985).

- 19) *Life of the Beloved: Spiritual Living in a Secular World*, (New York: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92); *In the Name of Jesus: Reflections on Christian Leadership*, (N.Y. Crossroad book, 1989); *Letters to Marc about Jesus: Living a Spiritual Life in a Material World*, (New York: HarperCollins, 1998).
- 20) *The Beauty of The Lord: Praying with Icons*, (Notre Dam Indiana, Ave Maria Press, 1987);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A Story of Homecoming*, (New York: Image, 1993).
- 21) *Adam: God's Beloved*, (Maryknoll: Orbis Books, 1997); *Lifesigns: Intimacy, Fecundity, and Ecstasy in Christian Perspective*, (New York: Image Books Doubleday, 1986); *Our Greatest Gift: A Meditation on Dying and Caring*,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4).
- 22) *With Burning Hearts: A Meditation on the Eucharistic Life*, (Maryknoll: Orbis Books, 1994); *Walk with Jesus: Stations of the Cross*, (Maryknoll: Oibis Books, 1990); *Can You Drink the Cup?*, (Notre Dame: Ave Maria Press, 1996).
- 23) *The Genesee Diary: Gracias!*; *The Road to Daybreak: A Spiritual Journey*, (New York: Image Books Doubleday, 1988).
- 24) *The Inner Voice of Love: A Journey Through Anguish to Freedom*, (New York: Doubleday, 1996).
- 25) *In Memoriam*, (Notre Dame: Ave Maria Press, 1980); *Beyond the Mirror: Reflections on Death and Life*, (New York: Crossroad, 1990).

갖고 초월적 실재에 대한 신비를 갈구하는 사람(spiritual seeker)의 삶의 여정을 보여준다. 그는 이런 자신의 영적 탐색과정이 동일한 실존적 조건과 시대적 상황에 놓인 이들이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다.²⁶⁾ 헨리 나우웬이 수행했던 영적 작업의 시대적인 배경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근대 이후 세속 시대의 종교적 상황

10년 이상 미국에서 활동하던 헨리 나우웬은 1985년 잠시 고향인 네덜란드를 방문한다. 그리고 자신이 자랐던 네덜란드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어떻게 경건한 나라에서 세속적인 나라가 되었는지 설명하기 쉽지 않다고²⁷⁾ 놀라워한다. 헨리 나우웬은 네덜란드에서 ‘하느님’이나 ‘교회’는 모호한 개념이 되어 버렸으며 성사와 기도도 사라진 것 같다고 회회한다. 그는 성경 또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신앙 생활은 일종의 공상이 되었다고 안타까워한다.²⁸⁾

헨리 나우웬이 진술한 이런 종교적 현상을 종교사회학자들은 ‘세속화(Secularization)’ 현상이라고 부른다. 유럽의 종교사회학자들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종교기관들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줄어들고 신자 수는 감소하며, 종교가 개인적 영역으로 후퇴하는 세속화 과정이 뒤따른다고 주장했다.²⁹⁾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었다. 호세 카사노바(Jose Casanova),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와 같은 학자들은 세속화 현상은 지역과 국가마다 양상이 다르며 세속화가 반드시 종교의 쇠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³⁰⁾ 예를 들어 서구 유럽에서는 근대이후 종교의 쇠퇴가 현저하게 드러난 반면 미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한다.³¹⁾ 찰스 테일러는 근대 이후 필연적으로 종교가 쇠

26) *Reaching Out: The Three Movements of the Spiritual Life*,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5), 8-9.

27) 헨리 뉴웬, 『새벽으로 가는 길』, 성찬성 옮김,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92), 141; Henri Nouwen, *The Road to Daybreak: A Spiritual Journey*, (New York: Doubleday, 1988).

28) *Ibid.*, 144-145.

29) Jose Casanova, “Rethinking Secularization: A Global Comparative Perspective”, *The Hedgehog Review*, Vol. 8, Nos. 1-2, (2006, Spring/Summer), 8.

30) 참조: Jose Casanova, “The Secular, Secularization, Secularisms” in *Rethinking Secularism*, ed., Craig Calhoun et al., (Oxford: OUP, 2011), 54-55, 60-61.

31) 찰스 테일러는 이렇게 미국의 세속화가 서구유럽의 세속화와 차이를 보이게 된 이유를 서구유럽은

되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고 설명하는 세속화 관점을 비판했다. 그는 세속 시대(secular age)로 이행해온 과정에서 삶과 인간관계, 세계, 종교 등을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개념과 이미지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세밀하게 분석했다. 이런 사회적 상상력(social imaginary)의³²⁾ 변화를 주의 깊게 살핀 그의 분석은 세속 시대의 종교가 놓인 조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에 찰스 테일러의 견해를 중심으로 세속시대의 종교적 특성을 살펴보고 헨리 나우웬의 영적 작업의 배경을 이해해 본다.

2.1 세속시대의 종교적 조건: 선택으로서 신앙과 상호압박(Cross-Pressured)

헨리 나우웬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Life of the Beloved*』 서문에서 저술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는 초월적인 삶과는 지극히 거리가 먼 것처럼 살아가는 프레더라는 청년을 만났고 그 청년과의 대화에서 그에게도 언뜻 언뜻 초월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을 본다. 그는 그 청년만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이들도 마음 깊은 곳에 영적 갈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기존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숙한 개념과 이미지들이 이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세속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적 생활을 전해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³³⁾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밝혔다.

헨리 나우웬의 저술 배경이 되는 세속화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찰스 테일러의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찰스 테일러는 세속시대 신앙의 조건(the new condition of belief)의 변화에 주목한다.³⁴⁾ 찰스 테일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힘

국가종교로서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던 구체제(Ancient Regime)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근대화의 과정에서 기성종교의 영향력에서 벗어난(Age of Mobilization이 뒤따름) 반면에 미국은 성립초기부터 단일한 국가종교를 표방하지 않고 국가와 종교를 분리시키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각 종파(denomination)로 공존하면서 일종의 시민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Age of Mobilization에서 출발함) 근대화의 이행과정에서 종교의 쇠퇴가 나타나지 않고 1960년대까지 이 흐름이 지속되었다고 본다. Charles Taylor, *A Secular Age*.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528.

32) 참조: 찰스 테일러,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상길 옮김, (서울: 이음, 2010), 43-52.

33) Henri Nouwen, *Life of the Beloved: Spiritual Living in a Secular World*, (New York: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92), 16-17.

34) 찰스 테일러는 세속화의 현안과 관련하여 세가지 범주로 설명한다. (1)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 (2) 종교적 신앙과 실천이 쇠퇴하는 것 (3) 신앙의 조건(the condition of belief)의 변화, 즉 신앙이 각자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테일러는

과 우주적 질서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바라보던 중세적 세계관이 근대 이후 이런 질서를 불신하는 “탈주술화(disenchantment)”된 세계관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³⁵⁾ 하지만 이런 변화가 종교적 세계관에서 과학적 세계관으로, 초월적 관점에서 내재적 틀(immanent frame)로 대체되었다는 주장을 비판한다. 테일러는 이런 식의 주장을 차감이론(subtraction stories)³⁶⁾이라고 부르고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편견(unthought)이라고 본다. 그는 역사적 사실로 접근해 보면 근대는 초월적인 사고방식과 이를 거부하는 내재적인 사고방식이 공존하는 시대라고 말한다. 근대 이전의 신앙은 절대적이었고,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이 진리는 하나의 ‘선택(option)’이 되었고, 초월적 사고방식과 이를 거부하는 내재적 사고방식이 ‘경합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신앙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앙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감각 속에서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하면서 믿게” 된다. 테일러의 세속시대를 해설하면서 스미스(James K.A. Smith)가 인용한 작가 엘리(Elie)의 글은 세속시대의 신자들의 조건을 보여준다.

우리는 신자나 신자가 아닌 자나 마찬가지로 모두 회의주의자다.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분명한 하나의 진정한 신앙은 없다. 모든 종교는 여러 개 중의 하나일 뿐이다. 정통을 가르는 분명한 경계선은 우리 체험을 통해 구부러졌고 우리 삶은 이 경계선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신자나 신자가 아니거나 똑같이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으며 복잡한 상황에 던져진 채 표징을 찾고 있다.³⁷⁾

이런 복잡한 상황은 신자들만이 아니라 비신자들의 조건이기도 하다. 초월을 상정하지 않고 내재적인 틀 속에서 충만함(full)을 살아가는 비신자들도 삶 속에서 뭔가 더 있다는(something more) 느낌에서 오는 압력을 받는다.³⁸⁾ 찰스 테일러는 세속시대의 종교적 조건은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모두가 순간순간 의심(doubt)과 갈망(long)으로 표출되는 ‘상호압박(cross-pressure)’을 받고 살아간다고 설명한다. 헨리 나우웬 스스로도 세속시대의 종교적인 조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세속화를 세 번째의 범주에 초점을 갖고 논의를 진행한다. Taylor, *A Secular Age*, 1-3.

35) 찰스 테일러, 『불안한 현대사회』, 송영배 옮김, (서울: 이학사, 2001), 11.

36) Taylor, *A Secular Age*, 26-29.

37) James K. A. Smith, *How (Not) To Be Secular: Reading Charles Taylor*,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14), 11.

38) Ibid., 12.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살고 있고, 평범한 삶 속에서 거룩한 것을 지켜가고 키워 가는 것에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나는 우리 공동체의 안팎으로 세속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바는, 내가 내 삶을 신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만큼이나 또한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프레디가 제기한 질문들은 나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세속 세계와 친밀한 대화를 할수록, 나 자신의 세속성(secularity)을 더 잘 발견할 뿐 아니라 프레디와 그 친구들도 내가 생각했던 만큼 동떨어져 있지 않았음을 더 잘 알 수 있었다.³⁹⁾

자신 역시 세속성에서 떨어져 있지 않다는 헨리 나우웬의 설명은 찰스 테일러가 말한, 한편에서는 초월적인 삶이 다른 한편에서는 내재적으로 축소된 삶이 서로 경합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당대 사람들이 받는 상호압박이라는 이런 종교적 조건이 헨리 나우웬의 영적 작업의 배경이 된다. 헨리 나우웬은 지금 시대에서 종교 공동체가 살아 있는 하느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의 길으로 드러난 종교성의 이면에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효력에,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관심에 -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의 현존까지도 - 커다란 회의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하느님에 대한 깊은 적대심과 관념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의심이 든다. 하느님을 자신의 유일한 관심사로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우리의 세대를 세속시대(secular age)라고 말할 때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세속주의(secularism)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의, 망설임, 의혹, 분노 심지어 증오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부식시키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⁴⁰⁾

그는 이런 세속주의가 세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방식에도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고 설명한다. 헨리 나우웬은 대부분의 신앙 공동체에서 기도가 기존에 갖고 있던 중심적인 위치를 잃어버렸고 하느님을 모호한 파트너로 인식한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는 신자들이 하느님에 대한 인식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용기가 결여된 비겁한 자로 인식한다고 보았다.⁴¹⁾ 헨리 나우웬은 이런 변화된 상황을 단순히 비난하고 고발하

39) Ibid., 117-118.

40) Henri J. M. Nouwen, *Clowning in Rome: Reflections on Solitude, Celibacy, Prayer, and Contemplation*, (N.Y: Image, 1979), 26.

41) Ibid., 27.

는 대신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그리스도교의 개념이나 이미지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대에 삶의 종교적 의미나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변증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이렇게 벌어진 간격을 다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자리는 ‘인간의 내부’, 즉 인간 존재의 인격적 체험의 여러 양상에 주목하고 이를 인식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⁴²⁾ 그래서 헨리 나우웬은 ‘고독’, ‘침묵’과 같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의 영적 수련의 방법들을 통해 인간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를 재해석해서 적용한다.⁴³⁾

1.2 단절 의식과 내면지향적인 움직임

헨리 나우웬은 과거에 익숙한 방법들이 와해되고 전통적인 보호 장치들의 힘이 상실된 당대의 현실에서 사목자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고민한다.⁴⁴⁾ 그는 현대인들을 ‘핵 인간(nuclear man)’이라고 부르며 이들이 역사적 단절로 인해 의식과 생활양식에서 이전 시대의 준거 틀이 무너진 ‘단절의 감정’⁴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는 ‘역사적 단절’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문화적 전통 가운데 존재하는 필수적이고 우리를 키워왔던 상징들 즉 가족, 사고체계, 종교 그리고 일반적인 생의 주기들과 관련된 상징들에 대해 인간이 느껴온 연계감(a sense of connection)의 단절’이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핵 인간에게는 창조적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연속 의식(a sense of continuity)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핵 인간은 자신을 비역사의(nonhistory) 일부로 여겨, ‘지금 여기’라는 바로 이 순간만을 중요시한다.⁴⁶⁾

헨리 나우웬은 이런 단절의식이 보여주는 삶의 특성으로 현대인들이 지금 여기라는 순간적인 인상에 자신을 몰입시켜 만족을 얻고, 단일한 사상이나 개념으로 삶의 일관된 전망을 도출해 낼 수 없다는 점을 든다. 그는 이런 임기응변적 삶을 음악의 즉흥곡이나

42) Nouwen, *Life of the Beloved*, 118.

43) Nouwen, *Clowning in Rome*, 27.

44) Henri J. M. Nouwen, *The Wounded Healer: Ministry in Contemporary Society*, (Garden City, N.Y.: Doubleday, 1972), 8.

45) Henri J. M. Nouwen, *Making All things New: An Invitation to the Spiritual Life*,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1), 32.

46) Nouwen, *The Wounded Healer*, 8.

미술의 콜라주와 같은 삶에 비유한다. 헨리 나우웬은 이런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옥, 연옥, 내세, 낙원, 하느님 나라”와 같은 상징이나, “하느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오셨고 현재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미래에 우리를 해방하러 오실 것”이라는 전통적인 메시지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보았다.⁴⁷⁾

찰스 테일러는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람들이 상실감과 몰락의 느낌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현대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런 근대의 불안(*malaise of modernity*)이 자리잡게 된 요인(*cause*)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설명한다. 그는 불안의 요인으로 개인주의, 도구적 이성의 지배, 그리고 개인주의와 도구적 이성이 정치생활에 미치는 무기력을 들고, 이 중 개인주의(*individualism*)에 주목했다.⁴⁸⁾ 그에 따르면 탈주술화로 불리는 근대로의 이행 과정은 양가적인 의미를 갖는다. 탈주술화 과정은 개인들이 초월적 위계 질서와 연결된 차등적 질서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근대적 자유를 획득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탈주술화 과정은 세계와 사회적 행위에 의미를 부여했던 ‘존재의 거대한 고리(*Great Chain of Being*)’가 해체됨으로써 인간 삶의 사회적, 우주적 의미 지평의 상실을 초래했다. 찰스 테일러는 탈주술화의 과정이 갖는 양면적인 성격을 역사적인 흐름으로 설명하면서 현대 문화 안에 자리한 또 다른 특징에 주목했다.

많은 분석가들이 현대에 들어 개개인들의 삶의 지평이 낮았이 없이 덤덤하고 협소해졌으며 그 결과 자기에게 몰두하는 일(*self absorption*)이 당대 문화의 고유한 형태가 되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지금 시대를 ‘공허의 시대’, ‘자기도취의 문화’로 불렀다. 하지만 테일러는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다. 그는 현대 문화와 자기실현의 추구 이면에 강력한 도덕적 이상이 있다고 보았다.⁴⁹⁾ 즉 세속적인 성공이나 실패 등 외재적인 가치기준, 사회적 요구, 규범들에 맹목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자기 진실성의 요구가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이런 진정성의 요구가 자기 자신이 자기 본연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본연성, 독자성(*originality*)의 원리를 바탕으로 자기와의 접촉(*self-contact*)의 중요성이 증폭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았다.⁵⁰⁾ 테일러는 1960년대

47) Ibid., 21, 28.

48) 찰스 테일러, 『불안한 현대사회』, 9-12

49) 찰스 테일러는 자기 진정성의 이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로 무엇이 좋은 삶인가라는 질문을 다루지 않는 중립적 자유주의, 스스로 도덕관점을 채택하는 주관적 도덕주의, 도덕적 이상을 주제로 삼지 않는 사회과학의 태도를 들고 있다. Ibid., 30-34.

50) Ibid., 45.

이후를 이전 시대와 구별해서 진정성에 대한 요구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진정성의 시대 (the Age of Authenticity)’라고 불렀다.

헨리 나우웬 또한 이 시대의 특성으로서 단절의식과 함께 또 다른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바로 사람들이 개인적인 것에 절대 우위를 부여하고 자아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내면 안에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⁵¹⁾ 그는 이들의 내면지향적인 움직임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그는 미래의 사목자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에 더 민감하고 내면에 계신 하느님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아빌라의 테레사나 십자가의 성 요한처럼 사목자들이 창조적인 영과 파괴적인 영을 구분해서 영적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⁵²⁾ 이런 헨리 나우웬의 주장은 찰스 테일러의 진정성의 시대의 영성과 맥을 같이 한다. 찰스 테일러는 진정성의 시대의 영성은 ‘스스로 발견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더 이상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명한 것은 없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발견해야(find)’하고, 영성은 전체성과 영적인 깊이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⁵³⁾ 헨리 나우웬이 내면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드러내고자 했던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에 관심을 갖고 영적 작업을 했던 것은 이런 진정성의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종교적 상황

헨리 나우웬이 활동을 시작했던 196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 사회에서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방식’은 기존의 종교전통이나 제도, 혹은 외적 권위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다양한 영적 추구로 옮겨간다. 헨리 나우웬은 1960년대 중반 미국을 방문하여, 멘닝거 연구소에서

51) 헨리 나우웬은 제프리 하텐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런 세대를 ‘내향적 세대’로 부르고 있다. 이런 내향성은 결국 개인주의가 될 수 있고 반권위주의적이고 반제도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즉각적인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헨리 나우웬은 이런 내향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고차원적인 위선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창조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Nouwen, *The Wounded Healer*, 28-29.

52) Ibid., 37-40.

53) Smith, *How (Not) To Be Secular*, 89.

사목심리과정을 거쳤으며 시민권리 운동이나 베트남전 반대집회에도 직접 참여했다. 헨리 나우웬은 자신이 체험한 미국 사회의 영적 추구 방식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영적 작업에 반영했다.

3.1 1960년대 영적 추구방식의 변화

종교사회학자 우스노우(Robert Wuthnow)는 195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인들이 성스러움을 이해하고 추구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가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연구했다.⁵⁴⁾ 우스노우는 자신의 저서 *After Heaven*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인들의 성스러움 추구방식을 ‘머뭍의 영성(spirituality of dwelling)⁵⁵⁾’으로 설명한다. 우스노우는 1950년대를 신앙의 내용보다는 교회 공동체에서 갖는 위치와 소속감(belonging, self-location),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했던 시기로 보았다.⁵⁶⁾ 그러나 그는 196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영적 길잡이를 찾고 순례자로서 영적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했다고 본다.⁵⁷⁾ 즉 미국의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방식이 ‘머뭍의 영성’에서 ‘추구의 영성(spirituality of seeking)’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⁵⁸⁾ 이런 변화들은 이전과는 달리 내면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것, 그리스도교 종교전통을 넘어서

54) 우스노우는 지난 50년간 미국사회 안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방식이 변했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개념으로 ‘머뭍의 영성’과 ‘추구의 영성’을 사용한다. 머뭍의 영성은 거주(habitation)중심의 영성으로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고,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가 강조되는 영성이다. 반면에 추구의 영성은 ‘교섭(negotiation) 중심의 영성으로 성스러움이 유동적이고 옮겨 다니며 개인들의 자발적인 모색을 강조한다. Robert Wuthnow, *After Heaven: Spirituality in America since the 1950s*,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3-11, 15.

55) Ibid., 15-17.

56) Ibid., 37-38.

57) Ibid., 57.

58) 우스노우는 이런 변화를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정치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전후 새로운 세대인 베이비부머들이 성장하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사회로 진입함으로써 삶의 유통성이 커지고, 핵가족화와 급격한 인구 이동이 일어남에 따라 이전의 지역공동체 혹은 지역 교회 중심의 삶의 양식을 더 이상 고수할 수 없게 된 점을 지적한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사람들이 앞선 세대와는 달리 영적 지평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었다고 본다. 둘째, 정치적 요인으로 그는 1960년대 베트남전쟁, 흑인인종차별, 시민권리 운동과 J.F 케네디, 마르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이 정의로운 질서를 대변하던 이들의 암살 사건을 얘기한다. 이런 사회적인 악에 직면한 것이 기존의 지역중심, 제도중심의 보수적인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의심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Ibid., 60-62, 66-71.

선, 요가와 같이 아시아에 뿌리를 둔 종교들, 집단심리요법(Esalen), 심신통일훈련(EST), 사이언톨로지(Scientology)와 같은 인문주의적인 영성에 대한 관심으로 드러났다.⁵⁹⁾ 우스노우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성스러운 추구를 하는데 있어 ‘영적 자유가 열린 시기’로 설명한다.

찰스 테일러는 1960년대의 미국사회의 이런 영적 전환을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설명한다. 그는 196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 문명에서 전통적인 실용적 개인주의와는 구별되는 ‘표현적 개인주의(expressive individualism)’가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출현했다고 설명한다. 이들의 종교생활이나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와 닿는가’라는 측면과 ‘개인의 영적 발전’이다. 이들은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교회든 국가든 어떤 틀에도 자신을 맞추는 필요가 없다고 본다.⁶⁰⁾ 외적인 권위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내면적 경로를 무시하는 방식의 영적 생활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⁶¹⁾

헨리 나우웬 역시 1970년대 미국사회 안에 기성 종교인 그리스도교의 틀을 넘어 다양한 영적인 탐색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정신집중’, ‘관상’, 그리고 명상이 이곳의 핵심 단어가 되었다. 요가 수행자들이 몸을 제어하는 강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장시간 자세 및 동양의 신비기들에 대해서 논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내면으로 이끄는 길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이런 그룹들의 행태를 모든 현대 사회에서 발견되는 지엽적인 기이한 행동으로 무시해 버리고 싶어할지 모른다. [...] 어떤 권위도 제도도 외적인 구체적인 실재도 이들의 불안과 외로움을 덜어주거나 자유롭게 해줄 힘이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다. ‘바깥 어디’, ‘위 어디’에 없다면 아마도 의미 있는 확고한 것이 ‘내면 어디’에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자아 내면 깊숙한 곳에 의미와 자유와 일치의 신비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⁶²⁾

헨리 나우웬은 이런 변화들을 지엽적이거나 기이한 행동으로 치부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는 이들이 기성의 종교적인 권위나 제도는 벗어나 있지만 자아 깊은 내면에 관심을 기

59) Ibid., 53.

60) 찰스 테일러, 『현대종교의 다양성』, 송재룡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15), 116.

61) Ibid., 123-130.

62) Nouwen, *The Wounded Healer*, 28. 이탤릭체는 필자 강조.

올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이곳에 새로운 열쇠가 있다고 긍정한다. 그는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미국 사회의 변화된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교 영적 전통을 통해 내면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적 발돋움 *Reaching Out*』 서문에서 그는 자신의 저술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영적인 삶이란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로,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돋움(reaching out)이다. 사실 발돋움은 이 책의 분위기와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용감하고 솔직하게 내면의 자아를 향해 발돋움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발돋움하도록, 또 기도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발돋움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⁶³⁾

헨리 나우웬은 영적인 삶을 가장 깊은 내면의 자아를 향한 영적인 발돋움이며 이를 통해 이웃으로, 하나님께로 발돋움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특히 ‘내면의 자아’를 강조한다. 같은 책에서 그는 내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독(solitude)’, ‘침묵(silence)’, ‘마음의 기도(prayer of heart)’, ‘헤시카즘(Hesychasm) 기도’ 등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의 여러 수련 방법들을 재해석해서 소개한다. 이런 그의 노력은 미국 사회의 영적인 추구의 변화를 수용하고 영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영성의 상업화와 영성화(spiritualization)

미국사회의 이런 영적 흐름의 변화로 이후 채널링(channeling), 뉴에이지(New Age), 점성술, 환생, 요가, 천사의 존재 같은 주제를 다루는 서적 등이 대규모로 유통되고 각종 수련법들이 영성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기성 종교의 틀을 넘어서서 인간 안에 자리한 고유한 신비와 내적인 삶을 접하고 체험하게 해 줄 수 있다는 방법들이 미국사회 안에 큰 사업(big business)으로 자리 잡는다.⁶⁴⁾ 이런 새로운 ‘영성’들은 초월적인 체험을 지향하지만 자신들을 특정 종교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영성’이 기성 종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었는데 이런 변화를 ‘영적 혁명(spiritual revolution)’이라고 부른다.⁶⁵⁾ 여기서는 종교와 영성, 영성과 심리치료의 경계도 점차 희미해진다. 2차 세계대전

63) Nouwen, *Reaching Out*, 9. 이탤릭체는 필자 강조.

64) Wuthnow, *After Heaven*, 132-133.

65) 폴 헤라스와 린다 우드헤드는 기성의 종교교단을 벗어나서 뉴에이지, 대안영성, 요가, 기 치료, 주술,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이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이런 흐름들은 점점 더 확고해진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미국인들 사이에는 개별적 영성과 내적 자아를 찾는 워크숍, 피징, 지지그룹 및 관련 서적들이 유행처럼 널리 퍼지게 된다. 기성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현상을 소비문화의 연장으로서 영적인 정크푸드(spiritual junk food)라고 혹평했다. 하지만 웨이드 클라크 루프(Wade Clark Roof)는 이런 움직임을 기존의 종교제도가 어느 한 종교 전통의 틀로 재단해서는 안 되며 이미 영성 자체가 큰 시장이 되었고, 영성 산업들이 급속히 확장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한다고 보았다.⁶⁶⁾

헨리 나우웬은 이런 미국 사회의 변화된 흐름을 수용하면서도 개인적인 ‘감정’과 ‘체험’이 중시되는 흐름이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영적 체험이 상업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의문들의 함당함에 대해서 질문하기 보다는 순간적인 해결책을 손에 넣고 싶어 한다. 빠른 치유를 약속하는 제안들에 믿음을 두려는 경향이 너무 커서 영적 체험들을 약속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영적체험이 상업적인 사업으로 변질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동질감, 카타르시스적인 감정의 고조와 짜릿함, 환희와 엑스터시에서 오는 해방감과 같은 강렬한 체험을 약속하는 사람들이나 장소로 몰려든다.⁶⁷⁾

체험과 카타르시스적인 해소 감정에만 초점을 두는 영성의 상업화의 흐름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헨리 나우웬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를 배제한 채 내적인 영적체험이나 감정에 집착하는 영성추

각종 소그룹 수련과 같은 영성으로의 이행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에서 면대면 조사와 통계를 이용해서 변화의 추이를 관찰했는데 기성종교의 참석률이 줄어드는 대신 대안적인 영성들의 참여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영국과 미국의 종교 생활 안에서 아직은 다양한 대안 영성들이 기성 종교를 대체할 만큼 잠식하고 있지는 않다는 면에서 외형적으로는 영적 혁명이 일어났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안 영성에 대한 참여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문화적인 영역이나 개인적인 믿음에서는 영적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한다. 한 예로 2000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성(spirituality)을 신과 상관없이 정의하는 사람의 비율이 응답자의 거의 1/3이었으며, 72%의 사람들이 영성을 기성종교나 교회 교리와 무관한 인격적(personal)이고 개인적(individual)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응답했다. Paul Heelas and Linda Woodhead, *The Spiritual Revolution: Why Religion is Giving Way to Spirituality*, (Malden: PaulBlackwell, 2005), 68-76.

66) Wade Clark Roof, *Spiritual Marketplace: Baby Boomers and The Remaking of American Religi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44-45.

67) Nouwen, *Reaching Out*, 92.

구의 경향을 ‘영성화(spiritualization)’라고 부르며 여기에 대한 강한 의문을 표시한다.

자신의 영성을 영성화하는 데만 열중하면 육신의 삶은 몸의 만족(carnal)만을 추구하게 된다. 사목자들이 주로 머리로만 사목을 하고 복음을 하나의 사상으로 간주할 때, 그의 육신은 고래 고래 소리치며 사랑과 친밀함을 구할 것이다. 영적 리더는 육화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육신 안에 산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몸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전체의 몸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현존을 발견하는 것이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은 형식적 영성화와 몸의 만족(carnality)을 피하고 진정한 성육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훈련이다.⁶⁸⁾

헨리 나우웬은 사목자들이 정서적인 외로움에서 오는 애정과 친밀함에 대한 갈구 때문에 ‘성육신의 삶’, ‘공동체적인 삶’, ‘성령의 현존’을 발견하는 것과 무관한 영적 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런 영성화는 영적인 것이라기보다 몸의 욕망(carnality)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헨리 나우웬은 미래의 사목자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내면과 이웃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에 머물러는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 하느님의 육화된 말씀을 접하는 사람. 하느님의 무한한 선을 맛보는 사람으로서, ‘관상기도를 하는 신비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⁶⁹⁾ 그리고 영성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을 기반으로 인간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는 영적 양성(spiritual formation)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결국 헨리 나우웬은 영적 생활에 있어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과정을⁷⁰⁾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4.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변화

헨리 나우웬은 가톨릭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1957년 가톨릭 신학교에서 서품을

68) Nouwen, *In the Name of Jesus*, 69-70.

69) *Ibid.*, 42-44.

70) 대표적인 예로 헨리 나우웬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의 엑스터시를 죽음의 장소, 정적인 장소에서 생명의 장소,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는 엑스터시를 개인적인 기쁨이 아닌 공동체의 선물로 보고 이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차원을 지닌 것으로 확장한다. Henri Nouwen, *Lifesigns: Intimacy, Fecundity, and Ecstasy in Christian Perspective*, (New York: Image Books, 2003), 74, 90-91, 102-103.

받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제로 살았다.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예일대학교로 자리를 옮길 때, 또 말년에 라르쉬 공동체의 사제로 활동할 때도 매번 교구장의 동의를 얻었던 것(서71) 알 수 있듯이 그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장했고 활동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며 큰 변화를 겪는다. 이제 이 공의회가 헨리 나우웬의 영적 작업과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에 대한 관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쇄신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황 요한 23세의 요청으로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총 4회기로 열렸다. 이전의 공의회들이 주로 교리 확정이나 이단과의 경계를 설정하는 법률적인 규제 중심의 공의회였다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시대의 도전과 요구에 대해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신학적 종교적 대답을 제공하는 ‘사목적 공의회’라는 면에서 교회사의 분기점을 이룬다고 평가받는다.⁷²⁾ 4년 동안 발표된 4개의 헌장, 9개의 교령, 3개의 선언에서 드러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은 ‘복음의 원천으로 돌아가자’와 ‘현대 세계 안에서 재적용(Aggiornamento)’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복음의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교회가 복음 정신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쇄신해야 하며 언제나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점(Ecclesia semper reformanda)을 천명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의회는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수용하고 복음의 정신을 재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헨리 나우웬은 직접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석하고 공의회 분위기에서 큰 활력을 얻었다.⁷³⁾ 헨리 나우웬은 그의 저서 『친밀함 Intimacy』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접 언급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러한 교회의 인간화를 적극 지지했다. 이 새로운 신학은 생활 각 분야에 나타난 인간의 잠재력을 총동원하는 일이, 하느님이 자기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깨닫는 가장 진실한 길이라고 격려한다. 새로운 신학은 세상의 피조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그리스도교의 세속화’라는 소명의 식별을 통해서 ‘발견된’ 것이다. 초대 교회 신자들이

71) Nouwen, 『새벽으로 가는 길』, 141.

72) 클라우스 샤츠, 『보편공의회사』, 이종한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5), 398-399.

73) 마이클 앤드루 포드, 『상처입은 예언자 헨리 나우웬』, 204-206.

했던 일이 바로 이것—황제와 국가를 탈신화화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세상을 본연의 모습, 즉 놀라운 성장 잠재력을 지닌 피조된 실체로 드러낼수록 이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더욱 요청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세속화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⁷⁴⁾

헨리 나우웬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표방하고 있는 ‘교회의 인간화’와 ‘그리스도교의 세속화’⁷⁵⁾라는 소명을 긍정하고 창조된 세상 안에서 창조주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갖는다. 그는 공의회가 이루려는 전례, 사회적 관계, 사제직의 쇄신이 신앙생활을 활기 넘치게 하고 지속적인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원천이 되게 하는 데 있다고 본다.⁷⁶⁾ 이런 지향이 바로 헨리 나우웬이 추구했던 영적 작업의 방향이었다. 하지만 헨리 나우웬은 자신의 저작에서 공의회 문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신학적인 변화가 헨리 나우웬의 영적 작업 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보기 위해서는 계시현장, 교회현장, 전례현장, 사목현장의 주요 내용과 헨리 나우웬의 저술과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4.2 하느님 계시의 인격성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계시현장 *Dei Verbum*」은 하느님의 계시를 이해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평가받는다.⁷⁷⁾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하느님이 초자연적인 신앙 진리를 전달한 것으로 계시를 이해했다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계시를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자기 전달로 이해했다. 계시현장 1장 2항을 보면 “하느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tanquam amicos alloquitur*) 인간에게 말씀 하시고, 인간과 사귀시며(*conversare*), 당신과 공동체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신다”⁷⁸⁾라고 선언한다. 계시현장은 계시의 ‘인격성’을 부각

74) Nouwen, *Intimacy*, 74-75.

75) 헨리 나우웬이 공의회 of 의미로 그리스도교의 세속화라고 정의할 때의 세속화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종교사회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속화와는 다른 개념이다. 그리스도교의 세속화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가 세상의 흐름과 무관하게 수도회나 교회 안에만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현실 속으로 더 깊게 스며들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 참조: Jose Casanova, “The Secular, Secularization, Secularisms” in *Rethinking Secularism*, 56.

76) Nouwen, *Intimacy*, 76.

77) 헬무트 호핑, 로마 지멘록, 『하느님의 말씀 / 인간의 존엄성』, 신정훈 옮김,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6), 209.

7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행,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6), 152.

한다. 따라서 신앙은 추상적이고 명제적인 신앙 진리에 대한 동의가 아닌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신뢰와 대화의 과정이다.⁷⁹⁾ 존 오말리(Jonh W. O'Malley)는 공의회에의 핵심 가치가 ‘대화’이며,⁸⁰⁾ 하느님 계시를 인격적인 대화로 바라보는 이 전환이 현대세계, 비그리스도인들, 타종교인들을 바라보는 태도에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다른 공의회 문서로 반영되었다고 본다. 이렇듯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하느님 계시의 인격성을 보여주었지만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격적인 하느님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과제로 남겨졌다.

헨리 나우웬은 자신의 영적작업을 하느님과 대화하고 만남을 가져갈 수 있는 길을 보여 주는 것에 두었다.⁸¹⁾ 그는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 안에 담긴 지혜들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 안에서 하느님과의 만남을 표현하는 은유와 상징은 시대에 따라 다양했다.⁸²⁾ 헨리 나우웬은 전통적인 용어인 ‘하느님과의 합일된 통교’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하느님과 만남을 표현하는 것을 비판했다.⁸³⁾ 대신 그는 ‘친밀함(intimacy)’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⁸⁴⁾ 친밀함은 하느님과의 만남의 인격성을 강조한 용어다. 그는 초기 저작에서부터 하느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주제를 자신의 영적 작업의 방향으로 삼았다.

79) 호평, 지벤록, 『하느님의 말씀 / 인간의 존엄성』, 211-212.

80) 오말리(Jonh W. O'Malley)는 공의회에서 ‘대화’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로 추상적인 신학을 비판하고 관계성을 강조했던 마르틴 부버(Martin Buber)의 영향을 들고 있다. 그는 발타살(Hans Urs von Balthasar)과 같은 가톨릭 신학자들이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신학을 비판하고 상호성, 체험과 믿음의 나눔을 강조했던 것도 이런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한다. John W. O'Malley, *Vatican II Did Anything Happen?*, (New York: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07), 20.

81) 헨리 나우웬은 당대의 신학교육이 “하느님께 대한 토론이나 논쟁 그리고 논증과 같은 복잡한 올라가”에 길러들어서, “하느님과의 단순한 대화나 하느님께 대한 단순한 대면”이라는 정작 중요한 “하느님의 현안들”은 실제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한다. 이는 헨리 나우웬의 중요한 관심사를 보여준다. Nouwen, *The Way of The Heart*, 47.

82) Bernad McGinn, “General Introduction” in *The Foundation of Mysticism: Origins to the Fifth Century*, (London: SCM Press, 1991), xvi-xviii.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치’, ‘영적 결혼’, ‘관상’, ‘하느님에 대한 환시, 신화, 영혼 안에서 말씀의 탄생’ 등이다. 이렇듯 시대에 따라 하느님과의 만남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달라지는 것은 앞선 언어들이 하느님 계시와의 만남을 적절하게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83) Nouwen, 『새벽으로 가는 길』, 66.

84) ‘친밀함’이라는 용어는 그의 저작 곳곳에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신성한 삶의 친밀함’ (*Making All Thing New*, 50-51), 신적인 포용의 완전한 친밀함 (*Lifesigns*, 31), 하느님과의 친밀한 일치 (*Reaching Out*, 114) 등 친밀함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많은 관심사의 기저에 깔린 하나의 중심질문이 점차 분명하게 보였다. “하느님과 맺는 관계와 동료 인간과 맺는 관계에서 어떻게 창의적이고 만족스런 *친밀감*을 찾을 수 있을까? 인간은 어떻게 타인과 풍요로운 *친밀함*을 이룰 수 있을까? 사목자의 삶이나 신앙공동체에서 친밀함이란 무슨 뜻일까? 예배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⁸⁵⁾

또 헨리 나우웬은 전통적인 관상기도를 하느님 현존에 머무는 훈련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한다. 그는 관상기도를 “하느님의 현존에 자리하고,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화된 하느님의 말씀을 만지고, 하느님의 끝없는 인자하심을 맛보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는 관상기도 훈련을 통해서 “생명의 원천인 하느님과의 인격적 친밀함”에 견고하게 뿌리내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한다.⁸⁶⁾ 헨리 나우웬이 자신의 영적 작업에서 이런 인격적 친밀함을 강조하고 관상 기도의 전통을 재해석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강조했던 하느님 계시의 인격성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3 하느님 현존의 매개로서 전례의 성사성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는 로마 전례의 양식에 따른 획일성을 요구해 왔다. 특히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편집된 전례규정집은 400년간 가필이나 삭제가 용인되지 않았다.⁸⁷⁾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 현장 *Sacrosanctum Concilium*」에서 “전례는 신자들의 삶과 만나야 하며, 변경 가능한 것은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적용시켜야 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의 일치에 기여해야 한다”(1항)고 선언한다. 이는 전례가 단지 예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로서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현존’(7항)에 참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는 하느님 백성 모두가 전례의 주체 행위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모든 백성은 전례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신앙의 신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14항, 48항). 이를 위해 「전례 현장」은 라틴어만이 아닌 자국어 전례의 가능성을 열었다(54항).

주목할 점은 「전례 현장」이 전례의 성사성을 강조하면서 성사라는 말이 지니는 풍부한 의미를 되찾았다는 것이다. 본래 ‘성사’(sacramentum)는 희랍어 어원 ‘신비’(mysterion)에

85) Nouwen, *Intimacy*, 1. 이탤릭체는 필자 강조

86) Nouwen, *In the Name of Jesus*, 42-43.

87) 구정모,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전례 쇄신의 발걸음」, 『신학과 철학』, 22(2013, 5), 16.

상응하는 말로 초월적 실재를 담고 나타내고 전하는 ‘표징’(signum)을 뜻한다. 「전례 현장」은 전례가 ‘성사’라고 함으로써 스콜라 신학 이후 일곱 성사를 가리키는 협의의 뜻을 넘어 하느님 현존의 신비에 참여한다는 초기 교회와 교부들의 폭넓은 성사의 의미를 회복했다.⁸⁸⁾ 또한 「전례 현장」의 공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전례에 있어서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례 현장」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현존은 축성된 빵과 포도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현존과 병행한다”는 것을 강조했다.⁸⁹⁾ 이로써 가톨릭 예식 중 말씀의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에 참여하는 성사성이 강화되었다.

헨리 나우웬은 자신의 저술에서 전례가 하느님의 현존을 매개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참여하는 자리가 되고 있는지를 고민한다. 저서 『뜨거운 마음으로 With Burning Heart』에서 그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상실, 현존, 환대, 일치, 사명의 이야기를 통해 성찬례가 갖는 영적 의미와 움직임을 설명한다. 그는 성찬례에서 드러난 예수 현존은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통한 현존임을 강조한다. 헨리 나우웬은 말씀을 통한 현존이 없다면 이후 이루어지는 빵을 나눔에서 이루어지는 현존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하느님의 말씀은 성사적인 성질이 있다. 이것은 그 말씀이 성스러우며, 성스런 말씀으로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현존하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수께서 길에서 슬픈 두 길손에게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에 관한 성서를 풀이해 주실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즉 그분의 현존을 체험한 것이다.⁹⁰⁾

헨리 나우웬이 강조하는 ‘말씀의 성사성’은 말씀을 통해 당신 자신이 실제로 현존하는 것으로서, 흔히 생각하듯 단순히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순간 말씀을 통해 드러난 현존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삶의 변화와 하느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헨리 나우웬은 이런 말씀의 성사성이 이후 일상 생활을 하느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성스러운 삶으로 보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그가 말씀의 성사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성사의 의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현장」 안에 드러나는 신비로서의 성사로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작품

88) 아르만도 쿠바, 김기태 옮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현장 해설(1-8항)」, 『누리와 말씀』, 32(2012, 12), 297.

89) 구정모,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전례 쇄신의 발걸음」, 17.

90) 헨리 나우웬, 『뜨거운 마음으로: 엠마오 가는 길(루가 24, 13-35)에 바탕한 성찬생활 묵상』, 정한교 옮김, (예관: 분도출판사, 1997), 47.

안에서 전례를 통해 성사의 신비로 참여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자 노력했다.⁹¹⁾

4.4 하느님의 모상(Imago Dei), 그리스도의 모상(Imago Christi)인 인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헌장 *Lumen Gentium*」의 첫머리에서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정의함으로써 보다 인격적인 존재로 규정했다. 공의회는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이며 그리스도 현존의 표지로 보았다. 또한 공의회는 교회를 제도에 앞서 구원의 ‘성사’로서 선언한다. 교회를 성사로 본다는 말은 앞서 살펴 보았듯이 신비로 보는 것이다. 「사목헌장 *Gaudium et Spes*」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교회가 갖고 있는 세상의 신비성을 찾아주는 소명을 회복한 것이다.⁹²⁾ 공의회는 「사목헌장」 안에서 교회가 인류와 인류역사에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교회를 이 세계 안에서 존재하며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며 활동하는 존재로 본다. 그리고 사목 헌장은 현대 세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공의회는 「사목 헌장」은 현대 세계의 현안들을 다루면서 궁극적으로 세상의 문제들이 인간의 문제에 귀결된다는 점을 인식했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인간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를 제시한 문서로 평가받는다.⁹³⁾ 「사목 헌장」이 제시하는 인간상은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으로 창조된 인간과 “그리스도의 모상(Imago Christi)”으로서 인간이다. 「사목 헌장」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유래했으며, 하느님과 인간은 긴밀하게 대화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한다.⁹⁴⁾ 「사목 헌장」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특성을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로서 확장시켰다. 「사목 헌장」은 인간 사이의 교류와 확대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소명의 근거를 인간이 지닌 하느님의 모상성에서 찾는다.⁹⁵⁾

「사목 헌장」은 하느님의 모상성과 그리스도의 모상성을 서로 연결한다. 즉 “인간이

91) 『뜨거운 마음으로』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Walk with Jesus*』에서는 가톨릭 전례에서 예수의 죽음의 길을 14개의 주요 장면을 묵상하며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해설하는데 예수의 죽음의 당대의 사건들과 연결시켜서 십자가 사건의 신비를 현재화시키고 있다. 『이 잔을 들겠느냐』에서는 고통의 삶이 어떻게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성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다.

92) 이제민, 『교회 순결한 창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한국 천주교회』, (예관: 분도출판사, 1995), 67.

93) 조정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에 나타난 인간관에 대한 고찰: 그리스도교 인간학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15(2008, 7), 98.

94) Ibid., 82.

95) Ibid., 83-84.

하느님의 모상일 수 있는 까닭은 인간이 진정한 하느님의 모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를 닮도록 하느님으로부터 계획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다.⁹⁶⁾ 이 세계의 창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격적 자기 완성에 이르는 길과 세상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인간이 지닌 그리스도의 모상성은 “다른 이들과의 공동체적 연대성이라는 인간의 소명을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 사랑이라는 새 계명 안에서 구체화하는 근거”가 된다.⁹⁷⁾ 「사목 현장」과 「교회 현장」의 이런 인간화적인 통찰은 인간 내면의 감춰진 신비로서 “하느님의 모상”과 “그리스도의 모상”에 이르는 다양한 길을 제시했던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을 재발견하는 것이기도 하다.

헨리 나우웬은 사목자가 ‘하느님의 모상’을 볼 수 있게 돕는 비판적 관상가(critical contemplative)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교 리더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소식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들의 고통의 어두운 장막 뒤에는 위대한 것이, 즉 그 형상에 따라서 지음 받은 하느님의 얼굴(the face of Him in whose image)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의 일상 안에서 볼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관상가는 강박적 세대에 리더가 될 수 있다.⁹⁸⁾

헨리 나우웬은 사목자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 잘못된 에너지를 창조적인 통로로 이끌어 주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창조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헨리 나우웬은 영적 생활에서 관상과 직무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한다. 그는 관상 기도란 주의 깊게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이렇게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은 육화의 신비 때문에 가능하고, 관상기도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상인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⁹⁹⁾ 그는 “관상이 보는 것이라면 직무는 이것을 가지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직무 생활은 이러한 관상이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도록 하는 삶”이라고 설명했다.¹⁰⁰⁾ 헨리 나우웬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상 생활과 직무를 통

96) Ibid., 89.

97) Ibid., 93-94.

98) Nouwen, *The Wounded Healer*, 44.

99) Nouwen, *Clowning in Rome*, 78.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모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느님이 이들을 보면서 뵈올 수 있는 사랑스런 아버지이심을 알게 된다.”

100) Ibid., 88.

해서 인간과 세상이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시하는 성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¹⁰¹⁾ 이런 헨리 나우웬의 영적 작업은 「사목 헌장」이 보여주는 인간학적인 통찰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²⁾

결론

헨리 나우웬이 자신의 영적 작업에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에 관심을 갖고 이를 재해석한 역사적인 배경을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외적 요인은 근대 이후 세속시대에서 신앙이 선택적이 되고, 사람들이 상호압박의 현실에 놓여있다는 종교적 상황의 변화이다. 또 다른 외적 요인은 1960년대 이후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영성운동의 흐름이다. 헨리 나우웬은 세속시대에도 진정성에 대한 갈망, 영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내면에 대한 관심은 긍정했다. 이런 갈망이 영성의 상업화와 종교 체험에만 몰입하는 영성화로 흘러가지 않도록 ‘고독’, ‘침묵’, ‘마음의 기도’와 같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을 재해석함으로써 내면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영적 양성과 이웃과의 연대성을 추구하는 영적 삶을 강조했다. 내적 요인으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가톨릭 교회의 변화가 있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 계시의 인격성과 성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신비로서의 의미를 강조한다. 또한 공의회는 현대 세계의 사목에 있어서 하느님 모상으로서 인간과 그리스도의 모상이라는 인간학적인 통찰을 통해서 현대 세계의 사목의 지향을 드러낸다. 헨리 나우웬은 그리스도교 신비전통의 영적 주제들을 재해석함으로써 하느님과의 ‘친밀함(Intimacy)’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전례에 있어서 말씀의 성사성을 강조한다. 또한 자신의 영적 작업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 안에서 ‘하느님의 모상성’을 보고 ‘그리스도의 현존’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즉, 헨리 나우웬의 영적 작업은 당대의 사회적, 종교적, 교회적인 배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여기에 대한

101) Ibid., 101.

102) 이런 관상의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헨리 나우웬의 영적 작업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은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이다. 헨리 나우웬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토마스 머튼을 언급했다. 토마스 머튼은 참된 내적 자아의 회복으로서 그리스도교의 관상전통의 의미를 현대에 되살리고 관상의 사회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는다. Harvey Egan, *Christian Mysticism: The Future of a Tradition*, (New York: Pueblo, 1984), 25.

영적 응답으로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을 재발견하고 재적용(aggiornamento)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사회 안에서 종교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도 기성종교의 틀을 벗어난 뉴에지를 비롯한 여러 대안영성, 기(氣) 수련등 각종 영적훈련 프로그램이 생활 가까이 자리잡고 있고, 불교의 템플스테이, 가톨릭의 피정 프로그램에 자신의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참여하고 있다. 찰스 테일러의 통찰처럼 세속시대에도 여전히 종교적 인간으로서 영적 추구는 줄어들지 않으며 초월성에 대한 상호압박 속에서 개인 안에 진정성의 요구가 커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헨리 나우웬의 영적 작업에서 보듯이 이런 시대의 영적 응답으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의 재해석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커지고 있다. 종교학자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는 “전통들은 전개되어 나가며, 인간의 신앙은 변천하나, 하느님은 항존한다”¹⁰³⁾는 말을 통해서 초월적 실재를 향한 인격적인 신앙은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인격적 신앙을 매개했던 축적적 전통 또한 늘 변화되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을 지금 시대의 요청 안에서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동적 참여자’¹⁰⁴⁾의 역할이 요구된다.

103)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 『종교의 의미와 목적』, 김희성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91), 255.

104) Ibid., 248.

참고문헌

- 구정모,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전례 쇄신의 발걸음」, 『신학과 철학』, 22(2013, 5), 13-20.
- 드아드르 라누에, 『헨리 나우웬과 영성』, 유해룡 옮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 류대영, 『미국종교사』, 서울: 청년사, 2007.
- 마이클 앤드루 포드, 『상처입은 예언자 헨리 나우웬』, 김명희 옮김, 서울: 포이에마, 2014.
- 아르만도 쿠바, 김기태 옮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현장 해설(1-8항)」, 『누리와 말씀』, 32(2012, 12), 287-318.
- 양병모, 「헨리 나우웬 영성이 현대 기독교 영성에 미친 영향: 한 복음주의자의 견해」 『복음과 실천신학』, 26(2012, 11), 70-107.
- 이제민, 『교회 순결한 창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한국 천주교회』, 왜관: 분도출판사, 1995.
-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 『종교의 의미와 목적』, 길희성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91.
- 조정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에 나타난 인간관에 대한 고찰: 그리스도교 인간학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15(2008, 7), 72-110.
- 클라우스 샤츠, 『보편공의회사』, 이종한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5.
- 한국 천주교 중앙 교회협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6.
- 찰스 테일러, 『불안한 현대사회』, 송영배 옮김, 서울: 이학사, 2001.
- _____, 『현대종교의 다양성』, 송재룡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15.
- _____,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상길 옮김, 서울: 이음, 2010.
- 한스 쾅, 『가톨릭의 역사』, 배국원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13.
- 헨리 나우웬, 『제네시 일기』, 성찬성 옮김,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9.
- _____, 『새벽으로 가는 길』, 성찬성 옮김,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92.
- _____, 『뜨거운 마음으로: 엠마오 가는 길(루가 24, 13-35)에 바탕 한 성찬생활 묵상』, 정한교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97.
- 헬무트 호핑, 로마 지벤록, 『하느님의 말씀 / 인간의 존엄성』, 신정훈 옮김, 서울: 가톨릭 대학교출판부, 2016.
- Casanova, Jose, "Rethinking Secularization: A Global Comparative Perspective", *The Hedgehog Review*, Vol. 8, Nos. 1-2, (2006, Spring/Summer).

- _____, "The Secular, Secularization, Secularisms" in *Rethinking Secularism*, ed., Craig Calhoun et al., Oxford: OUP, 2011.
- Egan, Harvey D. *Christian Mysticism: the Future of a Tradition*, New York: Pueblo, 1984.
- Gutierrez, Gustavo, *We Drink from Our Own Wells: The Spiritual Journey of a People*, trans. by Matthew J. O'Connell, N.Y.: Orbis, 1984.
- Heelas, Paul and Woodhead, Linda, *The Spiritual Revolution: Why Religion is Giving Way to Spirituality*, Malden: PaulBlackwell, 2005.
- McGinn, Bernard, "General Introduction" in *The Foundation of Mysticism: Origins to the Fifth Century*, London: SCM Press, 1991.
- _____, "Mysticism" in *The New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edited by Philip Sheldrake, Louisville, Kentucky: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3.
- _____, "The Letter and the Spirit: Spirituality as an Academic Discipline" in *Minding The Spirit: The Study of Christian Spirituality*, ed., Elizabeth A. Dreyer and Mark S. Burrows,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5.
- Nouwen, Henri J. M., *Intimacy*, New York: HarperCollins, 1969.
- _____, *The Wounded Healer: Ministry in Contemporary Society*, Garden City, N.Y.: Doubleday, 1972.
- _____, *Reaching Out: The Three Movements of the Spiritual Life*, New York: Doubday & Company, 1975.
- _____, *Clowning in Rome: Reflections on Solitude, Celibacy, Prayer, and Contemplation*, N.Y: Image, 1979.
- _____, *Making All things New: An Invitation to the Spiritual Life*,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1.
- _____, *The Way of The Heart: Connecting with God through Prayer, Wisdom, and Silence*, New York: Random House Publishing Group, 1981.
- _____, *Gracias! a Latin American Journal*,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3.
- _____, *Lifesigns: Intimacy, Fecundity, and Ecstasy in Christian Perspective*, New York: Image Books, 1986.

- _____, *In the Name of Jesus: Reflections on Christian Leadership*, N.Y.: Crossroad book, 1989.
- _____, *Life of the Beloved: Spiritual Living in a Secular World*, New York: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92.
- O'Malley, Jonh W., *Vatican II Did Anything Happen?*, New York: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07.
- Principe Walter "Broadening the Focus: Context as a Corrective Lens in Reading Works in Spirituality" in *Minding The Spirit: The Study of Christian Spirituality*, ed., Elizabeth A. Dreyer and Mark S.Burrows,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5.
- Roof, Wade Clark, *Spiritual Marketplace: Baby Boomers and the Remaking of American Religi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 Sheldrake, Philip, *Spirituality and History*, New York: Orbis Books, 1998.
- Smith, James K. A, *How (Not) To Be Secular: Reading Charles Taylor*,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14.
- Taylor, Charles, *A Secular Age*,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 Wuthnow, Robert, *After Heaven: Spirituality in America since the 1950s*,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헨리 나우웬의 영적작업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신광식

본 논문은 기존의 헨리 나우웬 영성에 대한 사목신학적, 그리스도교 교육학적인 접근 대신 역사맥락적인 연구를 통해서 헨리 나우웬 영적 작업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본 논문에서는 헨리 나우웬의 영적 작업의 외적 요인으로서 근대 이후 세속화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회적, 종교적 상황의 변화와 1960년대 다양한 영성운동으로 표출된 미국사회의 영적 추구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는 영적 추구에 있어 개인들의 모색이 중요해진 시대적인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내면에 대한 관심이 영성의 ‘상업화’와 종교 체험에만 몰입하는 ‘영성화’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했다. 한편 내적 요인으로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하느님 계시의 인격성, 성사의 신비, 인간과 사목 대한 가톨릭 교회의 변화된 신학적인 입장이 헨리 나우웬의 영적 작업 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폈다. 헨리 나우웬이 자신의 영적 작업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의 영적 수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재해석하려고 했던 것은 가톨릭 교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전과는 다른 시대 상황 속에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영적 갈망에 응답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었다.

주제어: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세속화, 영성운동, 영성의 상업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Study o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Spiritual Work of Henri Nouwen:
Focusing on His Interest in Christian Mysticism**

Shin, Kwangsig

This paper examines Henri Nouwen's spiritual works through the historical-contextual approach rather than from the commonly used pastoral theological approach or Christian educational approach. As external factors, it analyzes the social and religious changes caused by secularization and the changed spiritual pursuit of the American society reflected in various spiritual movements in the 1960s. While embracing individuals' spiritual exploration on their inner self, he tried not to let such concerns turn into 'commercialization' of spirituality or 'spiritualization'. As internal factors, it examines how his spiritual works reflect the changed theological stance after the Second Vatican Council including Divine Revelation, Sacrament, Pastrol and Christian Anthropology. His interests in the spiritual exercises of Christian mysticism and attempts to reinterpret them were his concrete efforts to respond to the spiritual thirst of modern people while accepting the changes in the Catholic church.

Key Words: Christian Mysticism, Secularization, Spiritual Movements, Spiritual Commercialism, Vatican Council II

논문 투고일	2019년 9월 29일
논문 수정일	2019년 10월 30일
논문게재 확정일	2019년 10월 25일
